

## 「연구과제 제안계획서 양식」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 2016년도 제주학연구과제 수요조사

### □ 제안자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전화번호)	E-mail
강만익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010-4199-2071	orum368@empas.com

### 1. 과제명

- 현대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의 변동실태와 활성화 방안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제안사유)

- 현대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의 변동실태를 재조직과 해체의 관점에서 각각의 배경과 구체적인 사례 연구 필요
- 마을공동목장조합 해체(공동목장 매각)에 따른 제주도내 사회적, 문화적, 초지생태적 문제점 제시
- '마을공동목장조합은 촌락공동체를 유지하는 공동체적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마을공동목장조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제시
- '축산업이 살면 마을공동목장조합도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제주의 축산업과 마을 살리기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 제시

### 3. 주요내용

-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의 변동실태

- 마을공동목장조합 재조직 배경과 사례
- 마을공동목장조합 해체 배경과 사례
-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 해체의 영향
  - 마을공동체성 약화 사례
  - 공동목장 초지 황폐화 등
-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 활성화 방안
  - 축산업 활성화와 중산마을 살리기 정책과 연계

####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제주지역 중산간 마을과 축산업 활성화에 활용가능
-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총체적인 변동실태 조사, 정리 가능
- 마을공동목장조합이 공동목장을 운영하면서 만든 다양한 전통적 목축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구축자료 제시
- 마을공동목장조합 해체가 야기할 사회문화적, 초지생태적 문제점을 토대로 추후 지속적인 마을공동목장조합 유지방안 제시
- 공동목장 운영에 참여했던 목축민(테우리)들의 생활사 정리

## 「연구과제 제안계획서 양식」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 2016년도 제주학연구과제 수요조사

### □ 제안자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이문호	전북대 전자공학부 교수	063-2709-2463 010-2370-2463	moonho@jbnu.ac. kr

### 1. 과제명

- 제주 정낭의 과학적 고찰을 통한 보존과 활용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제안사유)

- 3개의 정낭을 정주목에 삽입하는 정낭은 올레의 대문이다. 이 전통 관습에는 현대 정보통신의 원리가 숨어 있다. 이를 과학적으로 밝혀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화한다.
- 정낭은 발담 및 돌담과 연계해서, 세계무형문화유산 또는 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제주 지역에 산재된 정낭을 조사하고 향후 보존과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 3. 주요내용

- 흑용만리 발담과 올담의 정낭이 탄생에 대한 역사적 배경, 정낭의 2진부호통신 으로서의 논리적 해석,  
휴대폰과 컴퓨터의 원리로서의 정낭 logic, 현대과학과 정낭 태극 괘.
- 제주지역에 잔존하는 정낭 분포 조사, 활용방안

###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정낭은 디지털 논리회로로 휴대폰통신의 뿌리이면서 태극괘와 DNA의 원리다. 따라서 새로운 논리연구를 통해 제주의 전통 관습을 현대 정보통신과 결합해서 새로운 과학 문화 관광자원화 하고 세계농업유산 또는 세계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학문적 근거를 마련한다.

## 「연구과제 제안계획서 양식」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 2016년도 제주학연구과제 수요조사

### □ 제안자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이종무	제주한라대학교 관광중국어과/교수	010-6770-9688	jongdoll@hanmail.net

### 1. 과제명

- 유배문화현상으로부터 돌이켜보는 해양문화와 육상문화의 해후(邂逅) - 한국 제주도와 중국 해남도(海南島)의 유배문화 관련 문헌분석을 통한 제주특색의 글로벌문화컨텐츠 개발방안 연구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제안사유)

- 한국문화(이른바 ‘韓流’)가 전세계로 성공적으로 진출한 현재의 문화지형을 고려할 때, 21세기 제주도의 문화컨텐츠 개발과 문화시장 확보개발은 세계와 분리할 수 없음을 확신.
- 특히 21세기 현재, 질적 양적 측면에서 글로벌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 대한 문화시장의 확보와 공략은 제주도 문화의 글로벌화를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 제주도 문화권과 중국문화권 양자 간의 문화적 연결고리는 유사한 역사적 배경에 바탕한 ‘해양’문화와 ‘유배’문화 컨텐츠라고 단언함.

-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유배문화지인 제주도와 해남도(海南島)의 유배문화 관련 문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특별한 역사문화현상인 유배문화의 인문학적 특징을 고찰.
- 관련 문헌 분석으로부터 제주도와 해남도(海南島)의 유배문화를 해양과 육지문화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두 문화권의 충돌과 융합 속에서 형성되어진 독특한 역사문화산물을 고찰.
- 이러한 고찰과정을 통해, 혹은 독자적 문화권으로 혹은 육지문화의 전파지로서 두 가지 색채를 띠고있는 제주도와 해남도만의 독특한 문화현상을 21세기 문화컨텐츠개발의 코어(Core)로 삼아 차별화된 제주특색의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해양문화와 육지문화의 만남 통로: 유배 전후, 한반도와 중국 본토의 제주도와 해남도에 대한 인식, 제주도와 해남도의 한반도와 중국 본토에 대한 인식이 각각 전통적으로 어떠했는가를 탐색하고, 유배지로의 시작이 어떠한 문화적 변화와 영향을 끼쳤는가를 고찰.
- 해양문화와 육지문화의 충돌: 육지문화의 통로로서 작용한 '유배'문화에서 유배인물들이 제주도와 해남도에 도착한 뒤 난관으로 작용했던 도서(島嶼)지역의 풍토병과 음식문화, 지역민과의 갈등 및 지역에 대한 외세의 침략 등을 양자간의 충돌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문헌분석과 고찰 진행.
- 해양문화와 육지문화의 융합: 당시 유배를 통한 문화요소의 전파, 지역민에 대한 유배인물들의 교육활동, 제주도와 해남도 지

역에 대한 유배인물들의 적응 등을 해양문화와 육지문화와의 융합과정으로 분석, 제주도와 해남도에 전파된 육지문화의 순기능적 요소와 현지화된 전통문화풍속 고찰 및 발굴.

####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제주도와 해남도 간의 '유배 - 해양문화와 육지문화의 해후'라는 동일 문화고리를 바탕으로, 양국 역사문화자원의 교류를 증진하고, '아시아 유배문화벨트'의 기본축으로서 역할 담당.
- '유배'라는 해양문화와 육지문화의 해후 과정에서 형성되어진 제주도의 독특한 역사문화산물을 제주도 특색의 역사문화컨텐츠로 발굴하여 이를 각 제주지역 권역별 역사문화상품으로 개발.
- '해양문화의 육지문화의 해후'를 제주도 관광상품 개발의 모토로 삼아, 세계문화관광시장에 음식주를 포함한 유배문화의 체험 등 가장 제주도 다운 문화컨텐츠를 가장 글로벌하게 진출.

## 「연구과제 제안계획서 양식」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 2016년도 제주학연구과제 수요조사

### □ 제안자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전화번호)	E-mail
홍기표	제주도 문화재위원	010-2332-5109	hkp6236@naver.com

### 1. 과제명

- 조선시대 정려비(효열비) 실태조사와 자원화 방안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제안사유)

- 2015년도 (1차)‘조선시대 제주 목민관 비석(군)의 실태조사 와 자원화 방안’의 후속 연구(2차)로서 향후 전근대시대 제주지역‘기념비’,‘유허비’,‘마애명’실태분석과 자원화 방안(3차) 까지 연구가 이어지면 전근대시대 총체적인‘제주 금석문’자료가 확보되어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본 연구는‘조선시대 정려비(효열비) 실태조사와 자원화방안’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그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자 함.
- 제주 전역에 걸친 정려비(효열비)의 건비 총량과 이를 인물별, 시기별, 소재지별, 내용별로 분류하는 총체적 실태조사 와 분석 필요.
- 금석문 자료 특성상 마모·훼손·파손 등이 점증하여 소멸 위기 봉착.

- 지난 2년 여간(2013.01~2014.12) 제주 전역의 비석(군)을 사전 답사한 결과 비문에 대한 마모·훼손 정도가 빠르게 진척되어, 이를 반영구적 역사 자료로 삼기 위해 기록 보존(사진 촬영, 일비일첩 제작 등) 필요.

○ 제주도 문화재(자료)의 외연 확대.

- 2015년 현재 문화재(기념물 등)로 지정된 고비는 총 41기에 불과, 동일한 성격의 고비(군)에 대해 문화재(자료 등)로 지정하여 최소한의 관리 및 보존 대책 마련 시급.

○ 정려비(효열비)에 대해 소재지 마을 주민들의 인지도 저하.

- 누구의 비인지, 언제 세웠는지, 왜 세웠는지, 마을(또는 제주도)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건비가 합당한 것인지 등 일체의 정밀한 정보 제공 및 광범한 홍보와 교육 필요.
- 해당 마을 주민들이 정려비(효열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숙지하고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인지도가 갖춰져 이를 마을의 전통적 인문관광 환경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권고 필요.

### 3. 주요내용

- 제주도 전역의 정려비(효열비) 소재지에 대해 현장 답사.
  - 비석의 비문 기록 부문 전반(전면, 좌우측면, 후면 등)에 대한 사진 촬영(비제, 비명, 음기 등).
  - 비석의 상태 등에 대한 2015년 기준 실증적 자료 확보 및 구축.
- 제주도 전역의 정려비(효열비) 총량 파악 및 각급별 비교 분석.
  - 비석의 건립 연대 고증 및 추정(각종 문헌자료를 통해 비석의 시기별 건립과 특징 파악).
  - 정려비(효열비) 총량 파악과 이에 대한 인물별·시기별·소재지별·내용별 등의 자료를 DB(데이터베이스)화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분석 자료집 제공.
- 비석과 문헌자료상 대비를 통한 역사적 진실 접근.
  - 비석에 대해 문헌자료상의 해당 인물 정보 일체를 추출.
  - 비석에 대해 제주 역사상 의미를 문헌 등을 통해 조명.
- 비문(비명, 음기 등)의 정확한 글자 고증 및 해석과 역주.
  - 비석 전반(전면, 측면, 후면 등)에 새겨진 비문(비명, 음기

등)에 대해 정밀 고찰하여 글자를 철저히 고증,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역주 자료 제공.

- 기존에 알려진 내용 중 오자, 오역, 불역 등을 바로 잡아 더 이상 오류 없는 역사적 진실 제공.

○ 정려비(효열비)의 문화재로서의 가치 및 의미부여 가능 판단.

- 관련 문헌자료를 총동원하여 해당 정려비의 건립 연대와 역사적 의미를 검증하여 문화재(자료)로서의 가능 여부 판단.

○ 2015년 목민관 비석(군)에 이은 2차 사업으로 향후‘(전근대 시대) 제주 금석문’또는‘비석을 통해 본 제주사’의 자료집 완성을 목표로 함.

####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마을 만들기’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마을의 역사문화 자원화 구축.

- 해당 마을 정려비(효열비)에 대해 타 지역과 대비되는 보다 정밀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집 제공 ⇒ 주민들의 금석문 및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과 인지도 상승효과.

- 해당 마을의 역사 유적에 대한 인문학적 해설이 마련되어 마을 홍보 및 소개에 풍부한 내용성 담보 ⇒ 자연경관과 더불어 인문관광의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복합적 문화관광지로서의 제주 위상 제고.

- 금석문 문화재(자료)를 활용한 제주시 교육·홍보 ⇒ 해당 마을뿐 아니라 제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후손 교육 등 역사 교육의 장 확대.

○ 한반도 내에서 금석문의 보고 지역으로 특화된 제주의 역사 문화 강조.

- 세계 자연유산으로서의 제주도에 1차 사료인 금석문에 대한 역사적 사실까지 풍부하게 갖춤으로써 제주의 유구한 역사성과 정체성 양양.
- 삼다(三多)의 섬 외에 ‘비다(碑多)의 섬’이라는 제주만의 특화된 역사성을 강조하며 제주의 인문관광 자원의 풍부함을 각인.

○ 제주의 ‘돌 문화’ 콘텐츠 사업의 확장.

- 향후 제주 전역에 산재한 기념비, 유허비, 마애명 등을 포함하여 제주 금석문 전반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반하여 금석문을 통한 제주의 역사문화에 대한 풍부한 해설 자료 확보 목표.
-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을 통해 제주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 홍보에 활용하는 등 ‘비석(군)을 통해 본 조선시대 제주의 실상’에 대한 정밀한 역사 정보 제공.
- ‘비석따라 칠백리’ 또는 ‘제주도와 금석문’ 등의 스토리텔링화 작업을 추진하여 제주의 인문관광 분야 개척.